

부모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최지윤** · 김은실***

이 연구는 6세에서 11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민감성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연구이다. 연구절차는 ‘예비문항 도출’, ‘예비 조사’, ‘본 조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예비문항은 설문 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총 97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전문가 내용타당도 과정을 거쳐 예비문항 63개로 조정되었다. 이어서 예비 조사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검증,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 검증을 통해 1차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고,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 검증과정을 통해 최종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문항은 세 가지 요인과 7개의 하위요인의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속하게 인식하기’ 요인은 ‘행동변화 인식’(7문항), ‘감정 및 욕구 인식’(3문항)이었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요인은 한가지의 하위요인인 ‘감정 이해’(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적절하게 반응하기’ 요인은 ‘민주적 태도’(3문항), ‘수용적 태도’(4문항), ‘자율성 존중’(4문항), ‘한계설정’(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제어 : 부모민감성, 척도 개발, 타당화

논문투고일: 2022. 01. 18. 최종심사일: 2022. 03. 09. 게재확정일: 2022. 03. 16.

* 본 논문은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든술발달심리상담센터 원장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Kim, Eun-sil.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Daehak-Ro Seonghwan-eup, Choongnam, Korea, 31020. E-mail: gender@hanmail.net

I. 서론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그 누구보다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과의 애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홍계옥, 2007; Atkinson et al., 2000; Bowlby, 1995).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부모를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며 아동 스스로 가치 있고 신뢰로운 존재로 느끼게 되는데(이경숙·정석진, 2017; Trevarthen et al, 2006), 이러한 안정애착은 자아존중감 및 자아개념, 사회정서, 인지 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강력한 변인이다(정은미, 2018; Bylsma, Cozzarelli, & Sumer, 1997; Braungart-Rieker et al., 2002; Belsky & Fearon, 2002; Moss & St-Laurent, 2002). 반면 부모가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여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는 공격성, 우울, 불안 등의 부적응 문제가 나타난다(한영옥, 2002).

아동의 안정애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 중 하나는 양육자의 민감성이다(Ainsworth et al., 1978; 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Lucassen et al., 2011; Pederson & Moran, 1996). 민감성은 부모가 아동의 신호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절하고 즉각적이고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정유정, 2017). 민감성은 양육 지식이 많을수록(Yee & Oh, 2006),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감소할수록(김은실, 2007; 구미향, 2000; 신숙재, 1997; Abidin 1992; Belsky, 1984; Hock, Schirtzinger, 1992) 높아진다.

부모 민감성은 주로 2세에서 48개월 사이의 영·유아들(문재현, 2021; 이경숙·정석진, 2017; 김은실, 2013; 박은희, 2008; 이형민 외, 2008)이나, 만 3세에서 10세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민감성은 영·유아기 뿐 아니라 아동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민감성을 의미하는 부모의 행동도 다르다. 가령, 영·유아기는 돌봄과 관련된 행동들이 중요한데, 영아의 기질이나 환경적 요인을 잘 파악하여 영·유아의 몸짓이나 비언어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요구된다(민광미, 2014; 홍은숙, 2012). 반면 자기 유능감과 자기 효능감을 통해 자아개념이 발달하는 아동기(6세-11세)는 아동의 욕구와 바람을 이해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Armsden & Greenberg, 1987).

지금까지 개발된 부모민감성 측정 도구들은 주로 유아나 아동기 전기를 대상으로 한 도구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부모-영·유아 상호작용놀이평가(Parent-Child Interaction Play Assessment; P-CIPA)(Mash & Terdal, 1981), ASQ(Attachment Q-set)(Waters & Deane,

1985), MBQ(Maternal Behavior Q-set)(pedson, 1990), 어머니의 평정척도(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s; MBRS) PRQ(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Kamphaus & Reynolds, 2006)와 어머니 유아의 상호작용평가척도(최혜란, 2018)와 교사-용 놀이 민감성 척도(윤소정, 2021)들이 있다. 이 척도들은 1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들 중심으로 관찰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부모민감성을 측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관의 교사들이 양육과 관련된 케어와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교사의 민감성 측정도구(민광미, 2014)가 개발되어, 교사의 민감성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육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민감성의 관심은 감소한 추세이다. 하지만, 부모민감성은 아동기 이후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아동 후기인 6세에서 11세 아동은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단계인 4단계로 근면성 대 열등감에 해당 되며, 사회 기술을 습득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시기(주은지, 2014.)이다. 이때에는 부모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높은 호기심과 탐색을 보이며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한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 경험인 성취감과 인정의 욕구를 충족하여 유능감을 획득하며 세상에 대한 규칙과 질서를 배우고 학습하는 시기로 부모와 주변 환경의 지지와 격려가 아동의 자존감, 성격발달 및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의 부모는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이 표현해내지 못하는 내면의 욕구와 감정을 읽어주어 아동에게는 존중과 수용의 경험으로 상호작용에서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이혜경, 2020)즉, 이 시기의 부모는 아동에게 일관성 있는 한계설정을 통해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적절하게 반응하여 주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민감성 측정도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아동기 부모민감성 측정도구가 개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기 부모민감성 척도 개발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부모민감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부모와 아동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부모교육 및 아동발달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민감성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연구문제 2. 구성된 부모민감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연구대상은 예비조사 222명, 본 조사 310명으로 아동기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비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 참여가 많았으며, 아동의 성별은 예비조사에서는 남자 아동이 많았으나, 본 조사에서는 본문에 있는 <표 1>과 같이 여자 아동이 많았다. 부모 연령은 30-40대가 대부분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구 분		예비조사		본 조사	
		<i>n</i>	%	<i>n</i>	%
성별	남	49	22.1	41	13.6
	여	173	77.9	260	86.4
	전체	222	100.0	301	100.0
연령	20대	7	3.2	7	2.3
	30대	82	36.9	118	39.2
	40대	130	58.5	173	57.5
	50대	3	1.4	3	1.0
	전체	222	100.0	301	100.0
학력	고졸	33	14.9	31	10.3
	대졸	132	59.5	238	79.1
	대학원졸	56	25.2	30	10.0
	기타	1	0.4	2	.7
	전체	222	100.0	301	100.0
아동 성별	남	134	60.4	142	47.2
	여	88	39.6	159	52.8
	전체	222	100.0	301	100.0
아동 연령	6-7세	145	65.3	134	44.6
	8-9세	58	21.7	97	32.2
	10-11세	19	8.6	70	23.2
	전체	222	100.0	301	100.0

2. 연구도구

1) 모자상호작용평가 척도(Parent-Child Interaction)

부모민감성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Hetherington(1992)가 개발한 모-자 상호작용평가 척도(Parent-Child Interaction: PCI)를 문경주와 오경자(1995)가 번안하였다. PCI는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금자(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민감성 척도와 가장 관련성이 많은 훈육 행동의 ‘자녀 의견 존중’(11문항), ‘강압 및 처벌 행동’ (14문항), ‘비일관적 행동’ (10문항)의 3개 하위 요인을 5점 Likert 척도로 변형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87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예비문항 도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절차에 따라 부모민감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 예비문항 도출을 위해 50여 명의 부모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민감성 관련 문헌 등을 토대로 초기 문항을 97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8인의 전문가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 1차로 222명에게 1차 예비조사를 하였다. 확정된 문항에 대하여 표본을 달리하여 2차로 본 조사를 30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모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연구절차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연구절차

구분	단계	방법	내용
예비 문항 도출	1단계	개방형 설문 실시	부모 및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부모민감성에 관심이 있는 6세~11세 아동의 부모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 조사(50명)
		선행연구 고찰	개념 정리 및 가설적 요인 설정
		예비문항 선정	부모민감성 척도 초기 문항 선정
예비 조사	2단계	내용타당도 검증	8인의 전문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
	3단계	1차 설문 조사	설문 조사 (222명)
	4단계	예비척도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5단계	예비척도 타당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검증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 검증
	6단계	1차 문항 선정	부모민감성 1차 문항 선정
	7단계	2차 설문 조사	설문 조사 (301명)
본 조사	8단계	모형적합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적합도 검증
	9단계	구인타당도 검증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검증
	10단계	공인타당도 검증	모-자 상호작용척도와와의 공인타당도 검증
	11단계	최종 문항선정	부모민감성 척도 최종문항 선정

4. 자료 분석

부모민감성 척도의 문항 구성을 위해 예비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된 문항을 8인의 전문가들에게 5점 평정척도로 평정하였으며, 민감성 문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항은 삭제, 수정하여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문항은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도구의 일반성을 높이고 분석의 엄밀성을 더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동일한 대상으로 시행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였다. 통계분석은 SPSS 27과 AMOS 26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문항 도출

1) 예비문항 도출

부모민감성의 개방형 질문의 내용을 구분하고 분류한 결과, 신속하게 인식하기, 이해하기, 적절하게 반응하기의 3가지 요인의 내용이 추출되었다. 개방형 설문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속하게 인식하기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개방형 설문지의 신속하게 인식하기 구성요인 추출

주제	상위요인	추출요인
민감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속하게 인식하기	-자녀에 대한 관심 -욕구 알아차리기 -행동 및 행동의 변화 알아차리기 -감정 알아차리기 -빠르게 인식하기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민감성은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아동의 욕구와 행동 감정을 인식하고 그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민감성의 신속하게 인식하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확하게 인식하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개방형 설문지의 정확하게 인식하기 구성요인 추출

주제	상위요인	추출요인
민감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아동에 대한 이해 (행동/습관/스트레스/컨디션/아동의 특성/감정/ 행동/ 상황/ 발달)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부모민감성에서 아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행동, 특성, 욕구, 감정 등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적 욕구와 특성을 이해하는 양육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모민감성의 적절하게 반응하기와 관련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개방형 설문지의 적절하게 반응하기 구성요인 추출

주제	상위요인	추출요인
민감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적절하게 반응하기	아동의 특성/스트레스/행동/발달/ 감정변화에 대한 부모의 반응

위와 같이 부모민감성의 적절하게 반응하기는 아동의 감정, 욕구, 행동과 발달,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욕구, 감정,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부모민감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부모의 심리적 안정감, 자기인식 및 이해와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아동 존중, 발달 및 성장에 대한 이해와 아동과 친밀한 관계 형성이었다. 위의 개방형 설문지의 추출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표 6>의 구성요인들이 추출되었다.

<표 6> 개방형 설문지 부모민감성 추출된 구성요인

항목	구성내용
신속하게 인식하기 (알아차리기)	행동, 욕구, 감정의 인식 및 변화 알아차리기
정확하게 이해하기	행동의 이해 발달욕구 이해, 감정이해
적절하게 반응하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반응, 행동 및 감정변화에 대한 반응,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맞는 적절한 반응
부모민감성을 위해 필요한 것	부모: 부모의 심리적 안정감, 자기인식, 객관적 태도, 자신에 대한 이해, 부모교육 아동: 아동의 존중, 사랑, 아이발달 및 성장의 이해, 아동에 대한 관심, 아동특성, 친밀한 관계형성

2) 선행연구 도출

선행연구 도출은 선행연구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가정에서 아동의 욕구 충족과 그들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긍정적 상호작용에 도움을 주는 부모의 역할에 맞도록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특히 영·유아 민감성 척도의 공통적 내용이었던 Ainsworth 외(1974)의 민감성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신속하게 인식하기’, ‘정확하게 이해하기’, ‘적절하게 반응하기’로 하되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신속하게 인식하기’ 요인은 ‘감정 인식’, ‘욕구 인식’, ‘행동 및 행동 변화 인식’이라는 3개의 하위 요인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감정 이해’, ‘욕구 이해’, ‘행동의 이해’의 3개 하위 요인으로, ‘적절하게 반응하기’는, ‘한계설정’, ‘수용’, ‘자율성 존중’, ‘민주적 태도’의 4개 하위 요인으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이처럼 모든 문항들은 상위의 구성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구성 요인별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욕구와 관련된 구성요인별 내용

요인	하위요인	내용
신속하게 인식하기	행동 및 행동변화 인식	아동의 행동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리기
	감정 인식	아동의 감정을 빠르게 인식하기
	욕구 인식	아동의 욕구를 빠르게 인식하기
정확하게 이해하기	욕구 이해	아동의 행동에 따른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감정 이해	아동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적절하게 반응하기	수용적 태도	아동의 욕구나 감정을 수용해주는 태도
	한계 설정	아동의 행동에 일관성 있게 행동하기
	자율성 존중	아동의 성취와 도전을 위한 아동의 욕구 존중하기
	민주적 태도	부모의 자기인식과 자기 욕구나 감정에 빠지지 않기

3) 예비 문항 선정

이 연구의 예비 문항 구성은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차원은 민감성의 기본 바탕이 되는 ‘신속하게 인식하기’와 두 번째 차원으로는 신속하게 인식한 후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이다. 이에 맞는 ‘적절한 반응’이 세 번째 차원이다.

신속하게 인식하기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아동이 보내는 행동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안정, 애정, 성장 성취 등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감정의 표현 등이 있다. 이렇게 행동을 유발하는 행동 및 행동과 관련된 욕구와 감정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아동은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성취욕구로 인해 좌절과 성공 경험에 의해 따라 다양한 정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모는 아동의 행동의 변화, 욕구 인식, 감정 인식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민감성 구성요인의 두 번째 차원인 정확한 이해는 아동이 다양한 개인적 욕구의 이해와 욕구의 성공과 실패 및 좌절 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기의 구성요소로 욕구 이해와 감정 이해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다.

세 번째 차원인 ‘적절하게 반응하기’는 부모가 아동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을 두고 아동을 수용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지적이며 일관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부모민감성 구성요인으로 수용적 태도, 자율성 존중, 한계 설정, 민주적 태도로 추출하였다. 그중 민주적 태도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부정적 행동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추출된 문항은 97문항으로 추출된 문항 구성은 <표 8>과 같다.

<표 8> 부모민감성 예비문항 97개의 구성내용

구성요인	하위요인	문항 수	총 문항 수
신속하게 인식하기	행동변화인식	14문항	29
	감정인식	9문항	
	욕구인식	6문항	
정확하게 이해하기	감정이해	7문항	30
	욕구이해	23문항	
적절하게 반응하기	수용적 태도	15문항	38
	민주적 태도	10문항	
	자율성 존중	10문항	
	한계설정	3문항	

4) 내용타당도 검증과 문항 선정

부모민감성 관련 문헌연구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추출된 97개 문항에 대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신속하게 인식하기는 29개 문항 중 13개 문항이 탈락하였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문항은 30개 문항 중 15개 문항이 탈락하였다. 적절하게 반응하기는 38개 문항 중 9개 문항이 탈락하였다. 그 결과 총 60문항이 선별되었다. 삭제한 문항을 제외하고 추출된 문항 중 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문항은 수정하거나 보완하였으며, 적절하게 반응하기에서 수용적 반응과 관련된 문항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3문항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아이에게 어떤 때 훈육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 적절하게 반응하기로, “나는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알고 있다”를 추가 하여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통해 수정과 추가된 문항은 총 63문항으로 추출되었다.

2. 예비조사

1) 예비척도 기술통계

예비조사의 문항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모든 문항에서 왜도의 절댓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Kline, 2010), 이어서 문항-총점 간 상관 분석을 위해 교정된 상관계수(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를,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Cronbach's α 를 확인한 결과, 전체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 는 .953으로 나타났고, 문항 제거 시 이보다 높은 신뢰도가 나타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역시 .301~.697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예비 척도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예비조사에서 최종적으로 문항을 정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순화 과정을 거쳤다. 우선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지 KMO-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90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8333.300($df=1953$, $p<.001$)로 선정된 63문항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총 8개 요인 33개

문항이 도출되었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이론적 근거에 따라 대표성을 띠는 문항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제 1요인은 ‘행동 변화 인식’으로 총 8문항, 제 2요인은 ‘수용적 태도’로 총 5문항, 제 3요인은 ‘자율성 존중’의 4문항, 제 4요인은 ‘민주적 태도’로 총 5문항, 제 5요인은 ‘감정 이해’의 3문항, 제 6요인은 ‘감정 및 욕구 인식’의 3문항, 제 7요인은 ‘한계 설정’의 2문항, 마지막으로 제 8요인은 ‘욕구 이해’로서 3문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중 6요인 ‘감정 및 욕구 인식’의 3문항은 문헌 분석을 통해 초기 요인으로 감정 인식과 욕구 인식을 따로 명명하였으나, 감정과 욕구의 탈락된 문항이 많아 감정 인식과 욕구 인식을 하나로 묶어 ‘감정 및 욕구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의 Cronbach’s α 역시 모두 기준치(>.6)를 상회하여 최종 요인 구조를 확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예비조사)

번호	요인	원 문항 번호	수정문항 번호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신뢰도 계수
1	행동변화 인식 (PBC)	7	PBC_2	.769	9.529	28.877	.890
		14	PBC_6	.757			
		11	PBC_4	.687			
		6	PBC_1	.649			
		8	PBC_3	.646			
		13	PBC_5	.645			
		17	PBC_7	.635			
		18	PBC_8	.610			
2	수용적 태도 (RAA)	37	RAA_1	.744	3.255	9.863	.783
		63	RAA_5	.733			
		49	RAA_3	.713			
		38	RAA_2	.661			
		60	RAA_4	.537			
3	자율성 존중 (RAF)	57	RAF_3	.783	2.278	6.902	.802
		58	RAF_4	.739			
		56	RAF_2	.732			
		45	RAF_1	.623			
4	민주적 태도 (RAP)	52	RAP_2	.803	1.844	5.589	.725
		59	RAP_4	.721			
		53	RAP_3	.658			
		66	RAP_5	.648			
		47	RAP_1	.554			
5	감정 이해 (UE)	29	UE_3	.766	1.384	4.193	.808
		28	UE_2	.755			
		27	UE_1	.668			
6	감정 및 욕구인식 (PEN)	2	PEN_2	.782	1.132	3.430	.807
		1	PEN_1	.698			
		3	PEN_3	.600			
7	한계설정 (RDL)	62	RDL_1	.809	1.055	3.198	.657
		68	RDL_2	.716			
8	욕구이해 (UN)	34	UN_1	.638	1.019	3.088	.737
		35	UN_2	.572			
		36	UN_3	.465			
KMO=.878; Bartlett 검정 근사카이제곱=3450.249(df=528, p<.001)							

3) 예비척도 타당도 분석

(1)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에서 정제된 문항을 바탕으로 구조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 표본 대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초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text{CMIN})=842.287(df=467, p<.001)$, $\text{CMIN}/df=1.804(<3)$, $\text{RMSEA}=.060(\leq .08)$ 으로 기준치를 만족하였으나, $\text{NFI}=.769(\geq .9)$, $\text{NNFI}=.864(\geq .9)$, $\text{CFI}=.880(\geq .9)$ 로, 기준치에 상당 수준 미달하여 수용 가능하지 않은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전체 경로의 표준화 적재 값(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은 모두 .5로 나타난 바, $\text{SMC}(\text{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RAP_5문항(66번) (.244), RAP_1 문항(47번) (.300), PBC_8 문항(18) (.330), RAA_4 문항(60번) (.354), UN_1문항(34) (.370) 항목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며 모형 개선을 시도하였다.

또한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과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UN_2 문항(35)을 제거하였는데, 욕구 이해를 구성하는 항목이 한 문항밖에 남지 않아 해당 변수는 삭제 하였다. 최종적으로 UN_1, 2, 3번 문항, RAP_1, 5번 문항, RAA_4번 문항, PBC_8번 문항의 총 7문항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다시 적합도 분석을 하였더니, $\chi^2(\text{CMIN})=471.866(df=274, p<.001)$, $\text{CMIN}/df=1.722(<3)$, $\text{RMSEA}=.057(\leq .08)$, $\text{NFI}=.902(\geq .9)$, $\text{NNFI}=.903(\geq .9)$, $\text{CFI}=.918(\geq .9)$ 로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예비조사)

요인	문항	요인 적재량	AVE	CR
행동변화 인식	PBC_7	.663	.528	.887
	PBC_6	.725		
	PBC_5	.745		
	PBC_4	.720		
	PBC_3	.725		
	PBC_2	.773		
	PBC_1	.734		
감정 및 욕구 인식	PEN_3	.796	.638	.841
	PEN_2	.785		
	PEN_1	.815		
감정 이해	UE_3	.714	.620	.830
	UE_2	.846		
	UE_1	.798		
수용적 태도	RAA_5	.608	.454	.768
	RAA_3	.704		
	RAA_2	.668		
	RAA_1	.710		
민주적 태도	RAP_4	.595	.425	.687
	RAP_3	.605		
	RAP_2	.744		
자율성 존중	RAF_4	.790	.518	.808
	RAF_3	.800		
	RAF_2	.695		
	RAF_1	.568		
한계설정	RDL_2	.908	.557	.703
	RDL_1	.539		
$\chi^2(\text{CMIN})=471.866$, $df=274$, $p<.001$, $\text{CMIN}/df=1.722$, $\text{NFI}=.902$, $\text{NNFI}=.903$, $\text{CFI}=.918$, RMSEA=.057				

한편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행동변화 인식’과 ‘감정 및 욕구인식’은 ‘신속하게 인식하기’의 하위 요인들이었고, ‘수용적 태도’, ‘민주적 태도’, ‘자율성 존중’, ‘한계 설정’은 ‘적절하게 반응하기’의 하위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가 본 연구에서도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2차 요인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감정 이해와 욕구 이해’ 역시 정확하게 이해하기의 하위요인이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욕구 이해’ 변인이 탈락하여 따로 2차 요인 구조모형을 검증하지 않았다.

먼저, 신속하게 인식하기의 경우, $\chi^2(\text{CMIN})=94.781(df=33, p<.001)$, $\text{CMIN}/df=2.872(<3)$, $\text{RMSEA}=.072(\leq .08)$, $\text{NFI}=.916(\geq .9)$, $\text{NNFI}=.922(\geq .9)$, $\text{CFI}=.943(\geq .9)$ 으로 모두 기준치를 충

족하였고, 요인적재치가 .662~.847, AVE값의 경우 행동변화 인식이 .535, 감정 및 욕구인식이 .593, 마지막으로 CR값 역시 각각 .889, .813으로 2차 요인구조에서 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적절하게 반응하기의 경우, $\chi^2(\text{CMIN})=116.498(df=64, p<.001)$, $\text{CMIN}/df=1.820(<3)$, $\text{RMSEA}=.061(\leq .08)$, $\text{NFI}=.861(\geq .9)$, $\text{NNFI}=.916(\geq .9)$, $\text{CFI}=.931(\geq .9)$ 로, NFI가 기준에 약간 못 미쳤으나,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AVE값의 경우 한계설정(.514)을 제외하고 기준($\geq .5$)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기했듯이 CR값이 .6 이상일 때 AVE값이 .4를 상회할 경우 수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2차 요인구조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차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예비조사)

척도	요인	문항	요인 적재량	AVE	CR
신속하게 인식하기	행동변화 인식	PBC_7	.662	.535	.889
		PBC_6	.736		
		PBC_5	.726		
		PBC_4	.750		
		PBC_3	.717		
		PBC_2	.799		
		PBC_1	.724		
	감정 및 욕구인식	PEN_3	.738	.593	.813
		PEN_2	.837		
		PEN_1	.731		
$\chi^2(\text{CMIN})=94.781, df=33, p<.001, \text{CMIN}/df=2.872, \text{NFI}=.916, \text{NNFI}=.922, \text{CFI}=.943, \text{RMSEA}=.072$					
적절하게 반응하기	수용적 태도	RAA_5	.621	.454	.769
		RAA_3	.703		
		RAA_2	.661		
		RAA_1	.707		
	민주적 태도	RAP_4	.683	.450	.710
		RAP_3	.600		
		RAP_2	.724		
	자율성 존중	RAF_4	.741	.487	.788
		RAF_3	.805		
		RAF_2	.669		
		RAF_1	.549		
	한계설정	RDL_2	.789	.514	.677
		RDL_1	.637		
$\chi^2(\text{CMIN})=116.498, df=64, p<.001, \text{CMIN}/df=1.820, \text{NFI}=.861, \text{NNFI}=.916, \text{CFI}=.931, \text{RMSEA}=.061$					

(2)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검증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적재치($\geq .5$), AVE($\geq .5$), CR($\geq .7$)값을 살펴보고 있다. 요인적재치는 .539~.908($\geq .5$)로 모든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나, AVE값의 경우 수용적 태도(.454), 민주적 태도(.425)가 기준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고, 민주적 태도의 CR값(.687) 역시 기준치보다 약간 낮은 지수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지 않고, CR값이 .6 이상일 경우 AVE값이 .4 이상도 수용가능 하다(Fornell & Larcker, 1981)는 점에 서, 집중타당성은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의 AVE값이 최대공통분산(MSV: maximum shared squared variance)을 상회하는지, 그리고 AVE값이 각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높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Fornell & Larcker, 1981). 다음의 <표 12>에서 보듯이, 모든 변인에서 기준치를 만족하여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 12>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예비조사)

변인	AVE	MSV	PBC	PEN	UE	RAA	RAP	RAF	RDL
PBC	.528	.522	.727						
PEN	.638	.497	.705 (.497)	.799					
UE	.620	.522	.722 (.521)	.540 (.292)	.788				
RAA	.454	.292	.303 (.091)	.104 (.011)	.460 (.212)	.674			
RAP	.425	.071	.062 (.091)	.190 (.036)	-.012 (.000)	.267 (.071)	.652		
RAF	.518	.292	.462 (.213)	.281 (.079)	.379 (.144)	.540 (.292)	.236 (.056)	.719	
RDL	.557	.219	.468 (.219)	.382 (.146)	.424 (.180)	.130 (.017)	-.002 (.000)	.411 (.169)	.746

주) PBC=행동변화 인식; PEN=감정 및 욕구인식; UE=감정이해; RAA=수용적 태도; RAP=민주적 태도; RAF=자율성 존중; RDL=한계설정. 대각선의 굵은 수치는 AVE의 제곱근, 괄호안의 숫자는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의미함.

(3) 부모민감성 예비조사 1차 최종 문항 선정

예비 조사에서 추출된 문항은 총 33문항으로 <표 13>과 같다.

<표 13> 부모민감성 예비문항 1차 최종문항

구성요인	하위 요인	번호	내용
신속하게 인식 하기 (11 문항)	행동 변화 인식	6	나는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바로 알아차린다.
		7	나는 아이가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하면 바로 알아차린다.
		8	나는 아이가 두려워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바로 알아차린다.
		11	나는 아이의 얼굴 표정이 변화될 때 바로 알아차린다.
		13	나는 아이가 관심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을 바로 알아차린다.
		14	나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알아차린다.
		17	나는 아이의 행동(목소리, 표정, 행동)을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알아차린다.
		18	나는 아이의 행동과 언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바로 알아차린다.
	감정 및 욕구 인식	1	나는 아이가 떼쓸 때, 아이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2	나는 아이의 감정이 변하면, 바로 알아차린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6 문항)	감정 이해	3	나는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바로 알아차린다.
		27	나는 아이가 화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안다.
		28	나는 아이가 짜증이 나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안다.
	욕구 이해	29	나는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안다.
		34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신체적 접촉을 잘 알고 있다.
		35	나는 아이가 기분이 상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적절하게 반응하기 (16 문항)	수용적 태도	36	나는 평소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
		37	나는 아이의 행동을 나의 가치나 생각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38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49	나는 기분이 나빠도 내 감정을 잠시 뒤로 미루고 아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60	나는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을 때는 제지하기보다 아이와 함께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본다.
	민주적 태도	63	나는 아이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아이의 말을 먼저 들어 준다.
		47	나는 아이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내 주도하에 결정한다
		52	나는 내 기분에 따라 아이에게 반응한다
		53	나는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 아이를 이해하기보다는 혼부터 먼저 낸다.
		59	나는 아이와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할 일이 떠올라 아이와의 놀이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율성 존중	자율성 존중	66	나는 아이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기다리기 힘들다.
		45	나는 아이가 집중하거나 몰입하여 놀이를 할 때 방해하지 않는다. 몰입해 있을 때 방해하지 않는다.
		56	나는 아이가 스스로 해보려고 시도할 때, 위험한 것이 아니면 시도하도록 기회를 준다.
	한계 설정	57	나는 아이가 즐거워하는 놀이나 활동을 끝내야 할 때,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고 스스로 끝낼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58	나는 아이가 스스로 만족스럽게 느끼도록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기다려 줄 수 있다.
		62	나는 아이가 부적응 행동(떼쓰기, 공격행동)을 할 때 일관되고 단호하게 제지 한다.
		68	나는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반복할 때 일관적이고 단호하게 규칙을 알려 준다.

3. 본 조사

1) 본조사의 정규분포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일반성을 높이고 분석의 엄밀성을 더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화 분석을 위한 표집을 따로 실시하였다. 변인 분포의 정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모형적합도 검증

전체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 본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인식하기와 적절하게 반응하기의 2차 요인 구조모형을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14>와 같다.

먼저 신속하게 인식하기의 경우 $\chi^2(\text{CMIN})=123.630(df=30, p<.001)$, $\text{CMIN}/df=1.944(<3)$, $\text{RMSEA}=.077(\leq .08)$, $\text{NFI}=.926(\geq .9)$, $\text{NNFI}=.913(\geq .9)$, $\text{CFI}=.942(\geq .9)$ 로,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치가 .697~.819, AVE 값은 행동변화 인식이 .546, 감정 및 욕구인식이 .692, 마지막으로 CR값은 각각 .893, .870으로 2차 요인구조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적절하게 반응하기의 경우, $\chi^2(\text{CMIN})=189.403(df=64, p<.001)$, $\text{CMIN}/df=2.959(<3)$, $\text{RMSEA}=.079(\leq .08)$, $\text{NFI}=.901(\geq .9)$, $\text{NNFI}=.910(\geq .9)$, $\text{CFI}=.907(\geq .9)$ 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 적재치 역시 .606~.868로 기준치($\geq .5$)를 만족했다. AVE값의 경우 수용적 태도(.451), 민주적 태도(.485), 자율성 존중(.510), 한계설정(.514)으로 나타나, 수용적 태도와 민주적 태도가 일반적 기준인 .5에 미달했지만, CR값이 각각 .766, .73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수용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4>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 조사)

척도	요인	문항	요인 적재량	AVE	CR
신속하게 인식하기	행동변화 인식	PBC_7	.697	.546	.893
		PBC_6	.718		
		PBC_5	.700		
		PBC_4	.791		
		PBC_3	.707		
		PBC_2	.819		
		PBC_1	.730		
	감정 및 욕구 인식	PEN_3	.781	.692	.870
		PEN_2	.799		
		PEN_1	.910		
χ^2 (CMIN)=123.630, df =30, p <.001, CMIN/ df =1.944, NFI=.926, NNFI=.913, CFI=.942, RMSEA=.077					
적절하게 반응하기	수용적 태도	RAA_5	.606	.451	.766
		RAA_3	.714		
		RAA_2	.646		
		RAA_1	.715		
	민주적 태도	RAP_4	.750	.485	.738
		RAP_3	.640		
		RAP_2	.695		
	자율성 존중	RAF_4	.714	.510	.802
		RAF_3	.868		
		RAF_2	.680		
		RAF_1	.560		
	한계 설정	RDL_2	.775	.514	.677
		RDL_1	.653		
χ^2 (CMIN)=189.403, df =64, p <.001, CMIN/ df =2.959, NFI=.901, NNFI=.910, CFI=.907, RMSEA=.079					

다음으로 전체 측정모형 검증 결과, 아래의 <표 15>에서 보듯이 χ^2 (CMIN)=772.333(df =278, p <.001), CMIN/ df =2.778(<3), RMSEA=.077($\leq$.08), NFI=.903($\geq$.9), NNFI=.907($\geq$.9), CFI=.922($\geq$.9)로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였고, 신뢰도 계수 역시 모두 기준치(>.6)를 만족하여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 이해와 욕구 이해’ 역시 정확하게 이해하기의 하위요인이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욕구 이해’ 변인이 탈락하여 따로 2차 요인 구조모형을 검증하지 않았다.

<표 15>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 조사)

척도	요인	문항	요인 적재량	AVE	CR
신속하게 인식하기	행동변화 인식	PBC_7	.697	.546	.893
		PBC_6	.718		
		PBC_5	.700		
		PBC_4	.791		
		PBC_3	.707		
		PBC_2	.819		
		PBC_1	.730		
	감정 및 욕구 인식	PEN_3	.781	.692	.870
		PEN_2	.799		
		PEN_1	.910		
χ^2 (CMIN)=123.630, df =30, p <.001, CMIN/ df =1.944, NFI=.926, NNFI=.913, CFI=.942, RMSEA=.077					
적절하게 반응하기	수용적 태도	RAA_5	.606	.451	.766
		RAA_3	.714		
		RAA_2	.646		
		RAA_1	.715		
	민주적 태도	RAP_4	.750	.485	.738
		RAP_3	.640		
		RAP_2	.695		
	자율성 존중	RAF_4	.714	.510	.802
		RAF_3	.868		
		RAF_2	.680		
		RAF_1	.560		
	한계 설정	RDL_2	.775	.514	.677
		RDL_1	.653		
χ^2 (CMIN)=189.403, df =64, p <.001, CMIN/ df =2.959, NFI=.901, NNFI=.910, CFI=.907, RMSEA=.079					

다음으로 전체 측정모형 검증 결과, 아래의 <표 16> 에서 보듯이 χ^2 (CMIN)=772.333(df =278, p <.001), CMIN/ df =2.778(<3), RMSEA=.077($\leq$.08), NFI=.903($\geq$.9), NNFI=.907($\geq$.9), CFI=.922($\geq$.9)로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였고, 신뢰도 계수 역시 모두 기준치(>.6)를 만족하여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 조사)

요인	문항	요인 적재량	AVE	CR	신뢰도 계수
행동변화 인식	PBC_7	.688	.550	.895	.894
	PBC_6	.741			
	PBC_5	.732			
	PBC_4	.776			
	PBC_3	.729			
	PBC_2	.783			
	PBC_1	.739			
감정 및 욕구인식	PEN_1	.825	.637	.839	.822
	PEN_2	.890			
	PEN_3	.662			
감정이해	UE_3	.696	.613	.825	.821
	UE_2	.859			
	UE_1	.784			
수용적 태도	RAA_5	.597	.447	.763	.760
	RAA_3	.692			
	RAA_2	.675			
	RAA_1	.704			
민주적 태도	RAP_2	.723	.451	.711	.707
	RAP_3	.644			
	RAP_4	.644			
자율성 존중	RAF_4	.773	.542	.823	.812
	RAF_3	.848			
	RAF_2	.709			
	RAF_1	.590			
한계설정	RDL_2	.882	.552	.702	.668
	RDL_1	.572			
$\chi^2(\text{CMIN})=772.333$, $df=278$, $p<.001$, $\text{CMIN}/df=2.778$, $\text{NFI}=.903$, $\text{NNFI}=.907$, $\text{CFI}=.922$, RMSEA=.077					

타당도와 신뢰도 결과를 통해 나온 부모민감성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문항번호와 문항 수 신뢰도를 나타내면 <표 17>과 같다.

<표 17> 부모민감성 척도의 문항번호와 신뢰도 (본 조사)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신속하게 인식하기	행동변화 인식	6, 7, 8, 11, 13, 14, 17	7	.894
	감정 및 욕구 인식	1, 2, 3	3	.822
정확하게 이해하기	감정 이해	27, 28, 29	3	.821
적절하게 반응하기	수용적 태도	37, 38, 49, 63	4	.760
	민주적 태도	52*, 53*, 59*	3	.707
	자율성 존중	45, 56, 57, 58	4	.812
	한계 설정	62, 68	2	.668
총 문항			26	.868

주). *은 부정 문항

3) 공인타당도 검증

먼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은 아래의 <표 18>과 같이 모든 변인에서 기준치를 만족하여 판별 타당성 및 공인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 18> 판별 타당성 및 공인타당성 검정 결과(본 조사)

변인	AVE	MSV	PBC	PEN	UE	RAA	RAP	RAF	RDL
PBC	.550	.502	.742						
PEN	.637	.383	.619 (.383)	.798					
UE	.613	.502	.708 (.271)	.477 (.228)	.783				
RAA	.447	.288	.351 (.123)	.078 (.006)	.537 (.288)	.668			
RAP	.451	.021	-.073 (.005)	.146 (.002)	-.067 (.004)	.133 (.018)	.671		
RAF	.542	.284	.502 (.252)	.289 (.084)	.494 (.244)	.533 (.284)	.003 (.000)	.736	
RDL	.552	.262	.408 (.166)	.290 (.084)	.389 (.151)	.143 (.020)	-.051 (.002)	.511 (.261)	.743

주). PBC=행동변화 인식; PEN=감정 및 욕구인식; UE=감정이해; RAA=수용적 태도; RAP=민주적 태도; RAF=자율성 존중; RDL=한계설정. 대각선의 굵은 수치는 AVE의 제곱근, 괄호안의 숫자는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의미함.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6세에서 11세 아동의 양육자의 부모민감성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민감성 척도는 개방형 설문과 문헌 연구를 통해 최초 97개의 문항이 추출되었으며,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수정 및 보완하여 63문항이 최종 추출되었다. 추출한 63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신속하게 인식하기’, ‘정확하게 이해하기’, ‘적절하게 반응하기’의 세 가지 영역에서 7개의 하위 요인, 26개의 최종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신속하게 인식하기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서는 행동 변화 인식(7문항), 감정 및 욕구 인식(3문항)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과 감정 및 욕구를 부모가 빠르게 인식하는 능력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부모가 자기표현의 미숙함이 있는 아동의 언어뿐 아니라 비언어적 신호를 신속하게 알아차리고, 아동의 행동에 포함된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모의 민감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신속하게 인식하기의 문항으로 아동의 비언어적 신호인 울음, 미소, 음성어와 상황에 대한 신호를 양육자가 알아차리는 것(민광미, 2014)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예비조사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감정이해(3문항)와 욕구이해(3문항)의 2요인 중 욕구이해의 3문항 중 한 문항만 남아 욕구이해요인이 탈락되어 감정이해(3문항)의 요인만 추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기의 감정이해는 아동의 욕구와 관련된 감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부모의 민감성은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영·유아의 부모 민감성 관련 연구들에서는 신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포함되었다(Lohaus et al., 2004). 또한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신호 인식과 이에 대한 해석을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Eyberg et al., 1983; Gater, 2007; Howes, 1995; Pederson et al., 1990; Price, 1983; Smith, 2000),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적절하게 반응하기는 수용적 태도(4문항), 민주적 태도(3문항), 자율성 존중(4문항), 한계 설정(2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적절하게 반응하기의 문항은 부모가 아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아동을 수용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아동을 수용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감하고 적절한 부모의 능력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적절하게 반응하기는 부모가 얼마나 적절하게 반응하는지(Price, 1983), 양

육자의 적절한 반응능력(Ainsworth, 1989), 접촉, 친밀감, 애정표현, 즐거움, 온정적 감정에 대한 반응(Belsky, 1997)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번의 요인분석과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bach's α)는 .868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하지만 하위 요인인 한계설정의 신뢰도는 .668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항이 2개로 구성되어 문항 수가 적어서 신뢰도 계수가 낮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이 연구는 척도 개발의 타당화를 위해 1차 확인적 요인분석과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최초 8하위요인의 63문항이 7개의 하위요인의 26문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셋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민감성 척도의 공인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자 상호작용척도(Parent-Child Interaction: PCI)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훈육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첫 번째 요인인 '자녀의견 존중'은 행동 변화 인식과 감정 및 욕구 인식, 감정 이해, 수용적 태도, 자율성 존중의 긍정 문항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PCI의 '강압 및 처벌'의 문항은 부정적 의미의 문항들과 부모민감성 척도의 긍정적 문항인 '수용적 태도'와 '자율성 존중'의 문항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비 일관적 행동'은 한계 설정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비 일관적 태도'는 부모와 아동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나, 부모 민감성의 한계 설정은 일관된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해당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부모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모민감성 척도는 기존의 영·유아 중심의 어머니 대상이 아닌 아동기 부모민감성을 측정하여, 아동기 부모의 민감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본 연구의 부모민감성 척도가 기존 부모민감성 척도와 차별되는 점은 6세에서 11세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문항들로 선정되었고, 부모와 아동 간 상호작용의 질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부모교육 및 코칭 등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모민감성 척도에는 부모가 아동의 욕구, 행동, 감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적절한 반응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부모 스스로 자신의 양육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율적 도구로써 스스로 부족한 민감성 영역을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부모민감성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연구대상을 달리하여 2번의 확인적 요인을 하였는데, 1차에서 타당화 되었던 문항들이 2차 타당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삭제된 문항들은 아동의 정확한 욕구 이해에 해당하는 문항들

이었는데, 이는 아동기 발달에 중요한 부분인데 본 연구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수가 줄어들었다. 향후 연구대상을 달리하여 아동의 정확한 욕구 이해에 대한 문항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구미향(2000). 영아기 애착관계변인과 모성행동특성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실(2007). 사회적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 어머니의 민감성과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간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실(2013). 자폐성 장애 아동의 애착증진을 위한 모-민감성 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서·행동장애연구, 29(2), 249-276.
- 김은실·손현동(2011). 아이들의 행복키워드 민감성. 수원: 마음샘.
- 문경주·오경자(1995).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모·자 상호 행동 관찰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1), 41-55.
- 문재현(2021). 어머니와 영아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놀이성과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광미(2014). 영아반 교사용 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희(2008). 어머니의 민감성향상을 위한 모-아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영아기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소정(2021). 유아놀이에 대한 교사 놀이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숙·정석진(2017).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민감성 증진을 위한 비디오 피드백 개입(VIPS)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0(3), 103-122.
- 이금자(2004). 모자 상호작용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민·박성연·서소정(2008). 어머니의 양육유형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이혜경(2020). 어머니의 정서표현 지각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7(1), 33-48.
- 정은미(2018). 부모애착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5(1), 55-67.
- 정유정(2017). 영아반 보육교사의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변인 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은지(2014).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최혜란(2018).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평가척도 개발.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옥(2002).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미국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61-376.
- 홍계옥(2007). 교사-유아간 애착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관계. 부모교육연구, 4(1), 21-37.
- 홍은숙(2012). 영아-교사 간 상호작용에서 교사의 민감성과 민감성 인식 및 영아의 적응행동.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insworth, M., Bell, S., & Stayton, D. (1974). *Infant-mother attachment and social development: Socialization as a product of reciprocal responsiveness to signals*. M. Richards (Ed.), The integration of a child into a social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insworth, M., Bichar, M., Waters, E., & Wells,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rmsden, G. C., & Gree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Atkinson, L., Paglia, A., Coolbear, J., Niccols, A., Parker, K. C., & Guger, S. (2000). Attachment security: A meta-analysis of maternal mental health correlat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8), 1019-1040.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83-96.
- Belsky, J. (1997). Theory testing, effect-size evaluation, and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rearing influences: The case of mothering and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598-600.
- Belsky, J. A. Y., & Fearon, R. P. (2002).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contextual risk, and early development: A modera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14, 293-310.
- Bowlby, J. (1965).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London: Pelican Books.
- Braungart-Rieker, J. M., Garwood, M. M., Powers, B. P., & Wang, X. (2002). Parental sensitivity, infant affect, and affect regulation: Predictors of lat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72(1), 252-270.
- Bylsma, W. H., Cozzarelli, C., & Sumer, N. (1997).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global self-esteem.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9, 1-16.
- De Wolff, M. S., & Van Ijzendoorn,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 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571-591.
- Eyberg, S. M., & Robinson, E. A. (1983). Conduct problem behavior: standardization of a behavioral ra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12(3), 347-354.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oservable variables and measur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tes, M. K. (2007). *Differences in parenting styles and responsiveness: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of toddlers*. Ann Arbor, Michigan: ProQuest.
- Hetherington, E. M. (1992). Coping with marital transitions: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Child Development*, 57(2-3), 1-14.
- Hock, E., & Schirtzinger, M. B. (1992). Maternal separation anxiety: Its developmental course and

- relation to maternal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3(1), 93-102.
- Howes, C., & Smith, E. W. (1995). Relations among child care quality, teacher behavior, children's play activities, emotional security, and cognitive activity in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4), 381-404.
- Kamphaus, R. W., & Reynolods, C. R. (2006). PRQ 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manual. London, England: Pearson Assessment.
- Lohaus, A, Keller, H, Ball, J Voelker, S & Elben, C. (2004). Maternal sensitivity in interactions with three and 12-month- old infants: Stability, structural composition, and developmental consequence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3, 235-252.
- Lucassen, N., Tharner, A., Van IJzendoorn, M. H., Bakermans-Kranenburg, M. J., Volling, B. L., Verhulst, F. C., & Tiemeier, H. (2011). The association between p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 father attachment security: A meta-analysis of three decades of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6), 986-992.
- Mash, E & Terdal, L. (1981). *Behavior assessment of childhood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Moss, E., & St-Laurent, D. (2001). Attachment at school age and academic performance. *Development Psychology*, 37(6), 863-874.
- Pederson, D. R., Moran, G. (1996). Expression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outside of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7(3), 915-927.
- Pederson, D. R., Moran, G., Sitko, C., Campbell, K., Ghesquire, K., & Acton. H. (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6), 1974-1983.
- Price, G. M. (1983). Sensitivit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The AMIS scal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6(2-3), 353-360.
- Smith, D. T. (2000). Parent - child interaction play assessment. In K. Gitlin-Weiner, A. Sandgrund, & C. Schaefer (Eds.), *Play diagnosis and assessment*, 340 - 370. John Wiley & Sons, Inc..
- Trevarthen, C., Aitken, K. J., Vandekerckhove, M., Delafield-Butt, J., & Nagy, E. (2006). Collaborative regulations of vitality in early childhood: Stress in intimate relationships and postnatal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al neuroscience*, 65 - 126. John Wiley & Sons Inc.
- Waters, E. & Deane, K.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nos. 1-2. 41-65.
- Yee, Y. H., & Oh, M. Y. (2006). A comparative study between fathers and mothers on the parenting efficacy, knowledge of infant-care and sensitivi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9(3),

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s Sensitivity Scale

Choi, Ji Yun* · Kim, Uen Sil**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parent's sensitivity scale of children aged 6 to 11 years old. The research procedure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derivation of preliminary questions', 'preliminary survey' and 'main survey'. A total of 97 questions were extracted through surveys and prior research, and the preliminary questions were adjusted to 63 preliminary questions through the expert content validity process. For the preliminary study, the primary items were selec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alidity verification, and focused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verification. In this study, model fit was verifi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final 26 items were composed through construct validity and an official validity verification process. The final item consisted of 26 items of 3 factors and 7 sub-factors. The 'quick awareness' factor was 'behavioral change awareness' (7 questions) and 'emotion and desire awareness' (3 questions), and the 'understanding correctly' factor was composed of one sub-factor: 'understanding emotions' (3 questions). The 'response appropriately' factor consisted of 'democratic attitude' (3 questions), 'acceptive attitude' (4 questions), 'respect for autonomy' (4 questions), and 'limit setting' (2 questions).

Key Words : Parents' sensitivity,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 Director of the Dunsol Development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